

보도일시	2025.5.21.(수) 즉시 배포
담당처	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<진짜 대한민국>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(단장 : 안규백)
담당자	박영화 팀장(010-4652-0520) / 김윤진 팀장(010-5672-8877) / 나호선 팀원(010-9073-1328)

"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전략가들이 모였다"

후보 총괄특보단 산하 <국방안보자문위원단> 임명장 수여식

- 예비역 3성 장군 이상, 전 국방부장관 등 최고 국방 전략가 집결
- 내란극복 · 시강군도약 · 한미동맹과 자주국방강화 · 초급간부 개선 · 방산수출 재점화 · 동북아 평화중심축의 6대 비전 제시
- 서욱 자문위원장, “새로운 정부 하에 새로운 국방 태어나야”
- 안규백 단장, “우리 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평 열어달라”

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은 21일(수),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후보 총괄특보단 산하 ‘국방안보자문단’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. 예비역 3성 장군 이상, 전 국방부 장관, 합참의장, 각군 참모총장 등 국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과 정책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.

□ 자문위원단의 위원장에는 야전 지휘관과 정책·작전 분야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전략통인 서욱 前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. 또한 한미연합작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원인철 前 합참의장, 해양 전략 및 해군력 현대화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김정수 前 해군참모총장, 국산 전투기 개발과 미래 항공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박인호 前 공군참모총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.

□ 그 외에도 현장 경험과 실무역량을 검증받은 윤병호 前 공군차장, 여운태 前 육군차장, 여석주 前 국방부 정책실장, 김윤태 前 한국국방연구원장, 이남우 前 국가보훈처 차장, 김정섭 前 국방부 기획조정실장, 강은호 前 방사청장이 이름을 올려 자문위원단의 전문성과 무게를 더했다.

- 서욱 자문위원장은 “전직 국방부장관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등으로 우리 군이 처한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.”면서 “군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하에 새로운 국방이 태어나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- 안규백 후보총괄특보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전직 장관을 비롯한 장성단과 국방 전문가들이 대선을 앞두고 자문을 맡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”라면서 “<평화강군>, <첨단국방>, <방산대국>의 3대 비전 완수 등 우리 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- 이 자리에서 국방안보자문위단은 △내란의 상흔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로 재탄생 △인구절벽 위기를 AI 강군 도약의 기회로 극복 △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양날개로 국익 사수 △초급간부의 처우개선 및 자긍심 되살리기 △멈춰버린 방산수출에 불 지피기 △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축 되기의 6대 과제를 제시했다.
- 자문위원단은 총괄특보단 산하에서 향후 군사력 증강, 첨단전력 확보, 한미동맹 3.0 심화 등 미래지향적 국방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, 군 및 국방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안보 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.

※ 별첨 : 1. 국방안보 자문단 명단
2. 행사사진

연번	성명	직책	대표 경력
1	서욱	국방안보자문위원장	전) 국방부 장관
2	원인철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합참의장
3	김정수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해군참모총장
4	박인호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공군참모총장
5	윤병호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공군참모차장
6	여운태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육군참모차장
7	여석주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국방부 정책실장
8	김윤태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한국국방연구원장
9	이남우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국가보훈처 차장
10	김정섭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국방부 기획조정실장
11	강은호	국방안보자문위원	전) 방위사업청장



